

성평등 2017 - 01

2017 위탁연구과제 보고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비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

성평등 2017 - 01

2017 위탁연구과제 보고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비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

연구책임자 : 나윤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공동연구원 : 박현진(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경은(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장윤원(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성평등 실천 의지에 발맞춰 2017년 말 출발한 중간지원조직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비전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민간주도형 사업들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하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의 사회 변화 의지와 선택, 행위자성을 모으고 신장시키기 위한 협치의 매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만들어낸 제도화라는 높은 성과의 그늘이 보수성으로 작용하고 제도권 밖에서 폭발하듯 확장되는 여성주의적 지성이 여성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센터는 다양한 여성주의적 지향들을 접속시키고, '수많은-되기'를 실현하는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마을 활동가와 여성주의적 지향을 가진 이들이 서울을 성평등한 도시로 탄생시키는 데 기여할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본 보고서가 상정한 여성주의적 지향을 가진 이들이란 대학 내 페미니스트인 '숨', 2030 직장인 페미니스트인 '숨', 유자녀 여성인 '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센터는 여성학 전문 강사들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통해 여성주의 강좌, 트레이닝,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활동가와 '숨', '숨', '숨'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 여성주의적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고 여성주의적 실천과 운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초 페미니즘 연속 강좌, 주제별 심화 페미니즘 연속 강좌, 리더십 교육 및 트레이닝, 조직운영 및 실무교육 등과 함께 안정적인 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강좌와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과 센터, 강사,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참여자들에 대한 멤버십 형성과 센터가 위치한 혁신파크 내의 청소년, 청년, 중년 등의 세대 간 협조를 통한 돌봄도 제공할 것이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비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I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참여자	5
4. 샘터 주민	8
가. 마을 활동가	8
나. 성평등 활동가	9
II. 성평등 활동지원 센터에 대한 요구	11
1. 숨, 대학 내 페미니스트 (단체)	11
가.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의 상황, 고립	12
나. 실질적 위협으로부터의 공포	14
다. 네트워크의 부재	18
2. 숨, 2030 페미니스트 직장인	20
가. ‘숨통’으로서의 공간	20
나. 이직 네트워크와 일터의 노하우 공유	23
다. 전문 활동가로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networking)	28

3. 심, 유자녀 여성	30
가. 여성주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요구	31
나. 잘 기획된 장기간의 페미니즘 학습생태계	35
다. 지역의 인재발굴과 활용을 위해 ‘찾아가는’ 학습 생태계	36
라. 여성들의 조직화와 리더십 함양	38
III. 성평등 활동지원 센터의 활동 지형 제안	40
1.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을 위한 허브	40
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문화’를 결들인 기초 페미니즘 강의	40
나. 활동가 혹은 강사양성을 위해 커리어 개발과 병행된 심화 페미니즘 강의	43
2. 아카이빙과 네트워킹	46
3. 리더십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확장	58
4.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실무적 도움	63
가. 법률, 회계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초 강의	63
나. 조직운영 및 실무에 대한 교육	66
다. 공간 지원	69
5. 돌봄: 소속감 강화와 멤버십 형성, 아기 돌봄	70
가. 센터 주민에게 멤버십 부여	71
나. 아이 돌봄 제공	75

IV. 결론 77

V. 참고문헌 78

<표 차례>

<표 1> 5

<그림 차례>

[그림 1] 7

I.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2017년 하반기 서울시가 발족시킨 중간지원 조직 중의 하나인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비전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중간지원 조직의 탄생은 그 사회 안에서 시민조직의 성장과 함께 이뤄지는데 (홍영숙,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배경에는 성평등성과 관련한 국내 여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 조직은 ‘중간’조직이라는 위상과 ‘지원’이라는 역할 수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들을 매개, 연계하며 (김태영, 2016) 각 주체 또는 조직이 독자적인 실천을 할 때와는 다른 차원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조직이다. 즉 조직들 간의 매개와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끌어냄으로써 기존의 NGO에 비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조직들의 안정된 지속성에 기여하게 된다(Sanyal, 2006: 67; 홍영숙, 2017 재인용).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컨설팅, 코디네이션, 정보 교류, 파이낸싱, 로비, 경영, 연구, 네트워킹, 훈련,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우를 센터의 활동이 어떠한 지형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본 보고서에서 <성평등활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는 정부와 시민 혹은 시민단체 사이를 매개, 연계하여 각각의 주체가 독립적인 수행을 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차원의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협치’(governance) 주체의 위치를 갖는다. 협치란 정부 정책에 대한 소

극적 소비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 공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전제하는데,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센터는 정부는 물론 시민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즉, 서울시의 당면한 문제해결보다 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적 역량 함양과 여건 조성에 센터의 핵심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협치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지만, 당시의 정책 입안과 실행에 대한 시민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과 실행 주체로서의 시민을 상정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초등학생 급식 도시락에 관한 ‘나쁜 투표’ 이후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그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앞세워 2012년 취임과 함께 줄곧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자율과 자치를 내세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관 주도적이라고 느낀다 (2017, 이진이). 마찬가지로 이른바 ‘87 민주화체제’ 이후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활동이 있어 왔지만 서울시에서 젠더 관련한 ‘협치’가 본격적인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2015년 전후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나 실업과 함께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최근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다”라고 말했다. 여성들의 의지와 선택, 행위자성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gender-blinded) 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젠더와 관련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2016년 5월에 있었던 이른바 ‘강남역 사건’으로 노골화 된 ‘여성혐오’에 대한 20, 3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정체화 움직임은(#나는 페미니스트다) 한국 사회로 하여금 여성들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그들의 충만한 에너지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 구체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족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서울시 민간주도형 사업들의 주 참여자가 여성임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대표를 맡는다거나 여성 차별적인 행위들이 마을에서 일상적이며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전희경, 2008)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성들의 경험을 모으고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와 여성, 여성단체들 사이에서의 매개, 즉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려한다.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여성단체 지도자, 2030 페미니스트 활동가, 대학 내 여성주의 모임 대표 등과 만나 인터뷰 하고 그들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센터의 방향성과 비전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87년 이후 본격화 되어 온 한국 사회 여성운동의 결실은 당시 운동의 흐름을 주도해 왔던 한명숙이 2001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맺게 되는 듯 했다. 이후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는 등 한국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운동가들이 제도권에 진입했고, 그것이 여성운동의 성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과의 높이만큼이나 깊게 드리워진 여성 운동의 그림자는 운동성의 상실과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의 보수성으로 나타났다.¹⁾

2003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다양한 성들(genders)을 ‘양성’으로 축소하며 주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을 목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성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성평등 교육

1) "제도화가 과연 일상을 살아가는 마을의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지금 과제죠" (인터뷰이 P).

의무화가 결정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평원은 교육 대신 다수의 성평등 교육 강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성평등 교육 강사의 양적 팽창이 교육의 질 담보를 저해함에 따라 양평원은 성불평등의 다양한 맥락과 깊이를 다루지 못한 채 도식적이고 표피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보수적인 기관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그 사이 제도권 밖에서는 일상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들을 고민하고 운동으로써 저항하는 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언급했듯이 2016년 봄, ‘강남역 사건’을 기화로 그들의 축적된 에너지와 여성주의적 지성은 폭발하듯 확장되었다. 이 그룹들은 제도권에 있는 기성 페미니스트들과는 물론, 그들 간 정치성향, 운동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며 ‘여성연대’라는 오래된 숙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차이’는 맥락에 따라 비/가시화를 오가며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 전략의 주요한 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정체성 정치를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되 뚜렷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이들은 한 가지 언어나 개념 혹은 일관성을 지향하는 제도 안으로 수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다양한 여성, 여성단체들 사이에서의 협치를 매개하는 <성평등 활동지원 센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정체성들 간의 접속을 통한 ‘수많은-되기’가 가능한 조건과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보고서는 그 다양한 그룹 여성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지원으로 설립된 ‘제도’이지만, 여성들이 처한 상황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운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센터가 보수화 되지 않도록 외연확장에 열려 있는 협치의 모델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연구 참여자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비전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인 본 보고서가 관주도적 협치의 보수성을 벗어나 보다 많은 현장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혹은 현재 여성주의적 운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주의 단체의 대표 운동가와 그러한 운동에 이론적인 도움을 준 학자 등 11명을 인터뷰하였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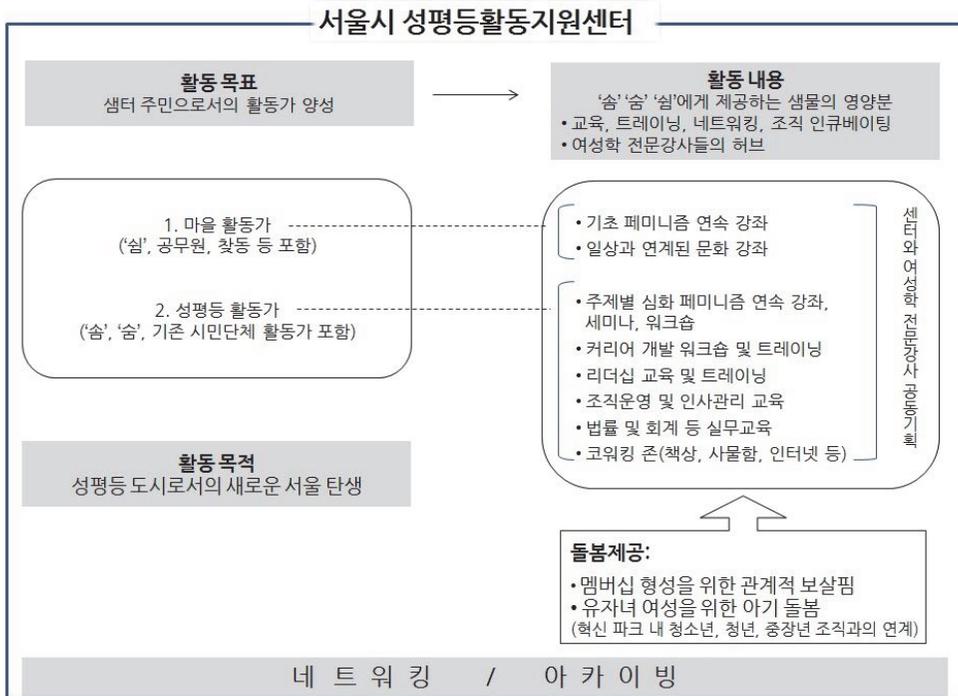
인터뷰이	연령대	소속
1	J	50대 여성주의 시민단체
2	P	50대 여성주의 시민단체
3	K	50대 여성주의 생협
4	H	50대 페미니스트 교수
5	N	40대 여성주의 시민단체
6	S	40대 여성주의사회적협동조합
7	W	30대 여성주의 시민단체
8	Y	30대 서울OO네트워크
9	O	30대 기업 내 여성주의 모임
10	G	20대 여성주의 활동가 모임
11	D	20대 여성주의 활동가 모임

인터뷰이 J는 2000년대 초반 여성단체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해 그 지부 조직에서부터 풀뿌리 운동을 해 왔다. 최근에는 P와 함께 서울시와의 협치 사업을 통해 여성주의적 시각의 활동가를 육성하는 활동을 했다. P역시 여성주의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해 풀뿌리 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활동가이다. K는 출산 후 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생협을 접하고 이후 약 20년간 생협 운동을 해 왔으며 현재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H는 대학의 페미니스트 교수로서 많은 영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상담해 왔으며, N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여성주의 이슈에 활발하게 입장을 내며 개입하는 단체의 활동가로 많은 영 페미니스트 단체와 협력해 왔다. S는 오랫동안 지역 풀뿌리 단체에서 여성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단체 등에서 영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W는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는 반성폭력 단체에서 활동하며 여러 경로로 영 페미니스트 단체와도 연대하고 있다.

Y는 성소수자 운동으로 시작해 청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로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는 IT회사에서 근무하며 최근에 IT업계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을 만들고 IT업계의 성평등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여성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G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평소 교류하던 사람들과 함께 집회 등의 여성주의 활동을 시작했고, 온라인 모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재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등 여성주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D는 대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 내에서 페미니스트 모임을 만들고 학생회의 소수자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위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로부터 연구진이 도식화하게 된 센터의 비전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안에서, 센터가 양성하고 배출하려고 하는, 즉 센터가 목표로 삼는 두 그룹은 마을 활동가와 성평등 활동가이다. 이들은 성평등적으로 척박한 한국 사회를 평등하게 조성하게 될 ‘샘터’의 주민들로서 각각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심화된 여성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도록 기대된다. 또한 마을 활동가와 성평등 활동가처럼 샘터의 주민으로 성장하거나 샘터를 방문하며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정보 공유 및 학습과 기획의 경험을 나누는 여성들을 편의상 ‘숨’ ‘숨’ ‘침’으로 명명하고자 한다.²⁾



[그림 1]

우선 센터의 주민들에 대한 기술을 한 뒤, II장에서 센터의 방문자들인 숨, 숨, 심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II 장에서 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센터라는 비유는 ‘센터와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여성주의적 담론, 교육, 실천을 ‘길어 올리는’ 중요한 플랫폼 혹은 ‘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임을 내포한다. 센터, 곧 센터가 길어 올리는 풍부한 영양소의 샘물 같은 지원 덕분에 ‘숨’ ‘숨’ ‘숨’들은 이곳의 단골 방문객이 되거나 마을 활동가 혹은 성평등 활동가 같은 센터의 주민으로 성장하도록 기대된다. 대학 내 여성주의 소모임을 이끌며 여성주의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때론 그 지식을 여성주의 운동으로 실천하는 이들을, 숨처럼 몽게몽게 피어날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데 착안하여 ‘숨’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센터에서의 심화된 여성주의 학습을 토대로 성평등 활동가가 되도록 기대 받는다. 20대 중반 이후 질실될 것처럼 답답한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공기 역할을 할 여성주의적 모임을 기획하거나 찾아나서는 2030 세대 여성주의자들을 ‘숨’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센터의 주민으로 성장하지는 않게 될 것이지만 센터의 지원 덕분에 각자의 영역에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를 바꿔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많은 여성들의 생애주기인 결혼, 출산, (독박)육아의 짐에서 벗어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여성주의 지식과 일상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에 대한 교육으로 심신의 휴식을 모색하는 여성들을 ‘심’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을 활동가가 되거나 더욱 적극적인 성평등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기대된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숨, 숨, 심들을 경계를 넘나들며 이러한 구분을 무색케 하기도 한다. 또한 맥락에 따라서 센터의 주민인 마을 활동가와 성평등 활동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샘터 주민

가. 마을 활동가

시민운동으로서의 풀뿌리 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2012년 서울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의 주요한 과제로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형성하며 급속도의 확장을 겪었다. 2015년에는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복지제도가 마을 만들기 활동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상호간의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띠는 장이 민관을 아우르며 넓어지고 그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가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마치 준설한 개울처럼 넓어진 이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며 이들의 성평등 의식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기존 풀뿌리 운동의 영역도 성평등 의식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민운동의 영역 안에서 여성운동이 이와 공존하며 연대와 소통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기제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이 확장되는 속도 이상으로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양적으로 확장된 이 영역에 시민운동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성인지적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의 유입 역시 많아졌음을 의미했고, 이는 이장에서의 성평등 의식의 부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는 성평등 운동의 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센터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를 비롯한 협치 영역의 관련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이들을 탁한 강, 즉 일반 사회에 흘러보낼 맑은 샘물로 길러 낼 (길어낼) 필요가 있다.

나. 성평등 활동가

한국의 성평등 활동은 80년대에 조직되기 시작하여 90년대의 정치 참여운동을 통해 급속도의 확장 시기를 겪었다. 한국 여성계가 94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거치며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시된 높은 수준의 결의 사항들을 채택하면서 여성문제와 관련한 제도화를 빠른 속도로 이루어 냈고, 많은 성과를 내며 성평등 제도를 안착시켜 갔다. 이에 힘입어 당시의 학생운동에서도 남성중심적 운동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적 모색이 이루어지며 ‘영 페미니스트’ 그룹이 형성되었다. 영 페미니스트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론적 엄밀성을 갖추고 많은 갈래를 형성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학생운동이 쇠퇴하면서 함께 그 맥이 약해지고, 성평등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여성은 자기계발적 노력을 통해 성취를 쟁취할 수 있다는 ‘포스트 페미니즘’적 믿음이 팽배해졌다.

대학의 여성주의 그룹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고 점차 사라져 가던 2010년대를 지나, 2015년에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다.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던 1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공통적인 차별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내면서 말라버린 것 같았던 샘에 물이 솟아나듯 성평등은 다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거의 20여년 만에 ‘영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영 페미니스트’들은 대학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평등 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한번 말라버렸던 샘이 다시 물길을 찾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새로운 장애물과 부딪치며 이전 세대의 경험들과 자신의 길이 다시 이어지고 모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샘터의 ‘숨’ ‘숨’ ‘숨’ 등 많은 방문자들이 샘터가 제공하는 성평등 담론, 교육, 실천 등의 영향으로 샘터 주민인 마을 활동

가 혹은 성평등 활동가로 성장한 후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성평등에 관하여 매우 척박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센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모색해 가는 일환으로 인터뷰이들과 진행한 인터뷰는 Ⅱ 장에서 정리되었으며, Ⅲ 장은 Ⅱ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의 비전을 제안한다.

II. 성평등 활동지원 센터에 대한 요구

센터에서 진행할 활동 내용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센터의 방문자들로 상정된 ‘숨’ ‘숨’ ‘침’과 센터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가 진행해야 할 활동 내용을 III장에서 제안한다.

1. 숨, 대학 내 페미니스트 (단체)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지성의 전당’이라며 오랫동안 성폭력에 관한 ‘안전지대’로 오인된 대학이 일상적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90년 대 중반 즈음 탄생한 ‘영페미’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영영 페미’ 혹은 ‘헬 페미니스트’라고 불린다. 또, 이들 대부분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트페미(트위터 페미니스트)’나 ‘페페미(페이스북 페미니스트)’, ‘넷페미(인터넷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들 모두가 대학생인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자들이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 모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웃도는 사회에서 많은 20대의 페미니즘 운동과 정치가 (남녀공학) 대학 내에 터를 잡고, 그 중 많은 단체들이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실천한다는 이유로 남성중심적 남녀공학 대학 내에서의 고립감과 소외, 그리고 여성혐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른바 남학생들의 ‘단톡방’ 사건이나 남자교수들의 여학생 성폭력에 대한 대자보 등에서 보듯 대학 안에서의 성폭력은 예외적이라기보다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나윤경, 노주희 2012). 그러나 대학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중재기관이나 학내기구는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여학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경우 공포를 경험한다. 그래서 이들

은 이야기 상대를 찾고, 상처를 말하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서로 모였다. 남성중심적인 대학은 이들과 이들이 만든 모임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상아탑’ 대학교에서 이미 지친 20대 여성, ‘숨’들에게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가.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의 상황, 고립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실제로도 고립되어 있다. 학내 페미니스트 모임을 꾸리고 있는 D는, ‘단톡방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학내 다른 커뮤니티나 학생들의 반응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꼈다.

그 때(단톡방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내 커뮤니티 반응이, 이거(사과 대자보) 자체가 가해자 인권침해가 아니냐, 왜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냐, 대자보 붙여진 것도, 그거 읽으면서 웃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이 블라인드 처리된 단어가 뭘까를 추측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저는 그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고.(D)

학과 안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동료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외모를 폄평하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단톡방 성폭력’ 사건은 최근 여러 대학에서 폭로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D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게다가 학내 커뮤니티는 “안티페미니스트”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며, 페미니즘적인 여론을 차단한다.

(안티페미니스트 총학에 대해서 D가 속한 페미니즘 모임이 작성한 입장문을) 그래서 캡처를 한 거는 00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남초 사이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그래서 그게 하나의 00대의 오피셜한 의견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사 나가는 것도 그 커뮤니티에서 기사 나가는 거다 보니까, 00대가 그만큼 남초적이고 안티 페미니스트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죠.(D)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여성혐오적 담론과, 학교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의 인식이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더 고립시킨다. 이는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할 기구는 없는 반면, 남성중심적 문화와 범죄 행위는 쉽게 용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학내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소외와 연결된다.

동아리도 어떤 경우에는 가등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등락을 하고 다른 동아리 장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아리를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성주의 동아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걸 사인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토론이 일어나는.(D)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대학 내에는 다만 여성주의 사유나 실천에 대한 ‘안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내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이 안정된 활동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내 페미니즘 모임은 고정된 공간이 없이 강의실을 전전한다. 그리고 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언제든지 교내 남학생들로부터 폭력이 가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페미니즘 모임은 도어락(잠금장치)이 있는 강의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른 동아리들 역시 공간을 원하기도 하지만, D의 사례를 보면, 페미니즘 동아리가 교내 구성원들로부터 공간 문제에 대해 더 “냉담한” 반응을 경험한다. 주위의 동료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판단은 자주 공포감과도 연결된다.

나. 실질적 위협으로부터의 공포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은 학교 사회에서 고립되기도 하지만, 모임 구성원들에 대해 남학생들의 “얼굴이나 보러가자”는 등의 실질적인 “위협”도 경험한다. 이러한 위협은 페미니즘 모임의 구성원을 ‘메갈’로 낙인화 하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물리적 폭력이나,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남초 사이트’에 공유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위협은 여성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수업권 역시 침해한다.

작년에 페미니스트 모임 행사 했을 때에도 ‘얼굴이나 보러가자’ 이런 식으로 폐북에 위협적으로 올라왔었고 욕하는 메시지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자)’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수업 중에 페미니즘 관련한 발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려요. 자기들도 명예훼손이 되는 걸 아니까 최대한 특정 안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을 해서 올리는데, ‘오늘 몇 시에 무슨 수업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 메갈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올라와요. … 예를 들어, 본인 얼굴이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그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처를 해서 외부로 다 퍼다 날랐거든요. 그 아카이브인가 하면서 저장을 해놓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도 누가 올린 거예요. 그게 프로필 사진이어서 조그맣게 나온 거긴 하지만,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사진에 분명 적혀있는 페이스북을 캡처를 해가서 그런 식으로 퍼다 나르는 거죠.(D)

그 당시에 그 몰카(사건)도 있었거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몰카 찍은 것도 있었고. 어떤 여성 사진 찍어서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나를 폄평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두려움 플러스 00대라는 곳의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식이 없으니까 00대 안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 그리고 이제 내가 수업 중에 발언 하는 것도 이름이랑 얼굴을 알잖아요.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든, 무슨 과 누가 메갈 발언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D)

D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주의를 둘러싼 대학 내 남학생들의 반감과 이에 따른 여성주의자 여학생들의 공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미니즘 모임의 구성원들은 가장 안전할 것으로 기대한 대학교 안에서 여성주의자로서의 실천과 그 실천을 홍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녀들은 남학생들의 성폭력과 위협 등에 미온적인 학교를 대하며 여성주의 활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낙인화되기 쉬운 학내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거나, 거기에서마저 익명으로 의견 표출을 한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 혹은 새로운 영 페미니스트들은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온라인이 세상의 전부인’ 세대로 비춰지기도 하며, 풀뿌리 활동가들을 비롯한 선배 여성주의자들은 자신들처럼 오프라인에서 연대하지 못하는 이들을 ‘각개전투’ 세대라고 특징짓는다.

오랫동안 성인지 교육을 해온 S 역시 예전에 비해 최근 부상한 페미니스트들에게 느끼는 차이를 ‘온라인’으로 꼽는다. 그들은 온라인에서의 쟁점을 “현안”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로 이해된다.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20대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몇 가지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온라인에서 뜨는 이슈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완전히 그것이 세계 일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필드이고, 그게 폐북이건 아니건 뭐 유튜브든 아니면 트위터든 간에, 온라인에서 나오는 것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는 건 다 항상 온라인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온라인 쟁점이 현안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요. 또 하나는 그 온라인의 장에서 그냥 각 개전투 같은 것을 막 하거나 이러면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의 얘기들에 대해 “맞는 것 같아”, “사이다야” 이러면서 습득한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S)

근데 지금 어쨌든 새로 부상한 페미니스트들은 다 대부분 SNS에서 자기 정체화를 하고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이슈를 따라가면서 또 조직을 만들고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올 건지, 그게 문제고. (N)

N은 최근 ‘온라인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SNS에서 “자기 정체화”를 한다고 말한다. SNS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매일의 이슈가 터지는 공간이며, 전투력 혹은 화력을 높이는 대상이다. 하지만 N은 “SNS에서 오가는 얘기는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르”고 터지는 이슈에 비해 “이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온라인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가 대중화 할 힘이나 자원,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는다.

온라인에서만 계속 오가는 방식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무언가 밖으로 요구를 더 드러내서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죠. 모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집회는 하지만 얼굴도 내비칠 수 없고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주장할 수도 없고.(N)

하지만 자신의 단체가 온라인에 기반을 두는 ‘온라인 페미니즘 단체’라고 정체화하는 G는, 최근 페미니즘 운동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기 힘든 이유를 짚는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에 인정하고 이들을 대표하고 연결할 집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보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대신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 더 함부로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들도 필요하죠.(G)

언급했듯이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공포와 고립감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활동반경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각개전투”적인, ‘단타성’의 운동방식은 단순히 이슈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무맥락적인 것이 아니다. 남녀공학대학교에서 여성주의단체가 겪는 특정한 한계와 고립,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벽을 보면서도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유한 이유와 명분, 그리고 전략을 가진 짜임새 있는 운동인 것이다.

다. 네트워크의 부재

대학 내에서의 고립과, 위협으로 인한 공포는 결국 학내 페미니즘

네트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D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누가 찢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를 바란다. 현재 D는 대학 내 여성주의 모임 ‘단톡방’에 속해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지인 간 “알음알음” 형성되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몰려있다는 단점이 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학내 페미니즘 모임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도 부재하지만, 윗세대와의 수직적 네트워크 역시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해 줄 선배가 없는 이상 여성주의 운동의 전략과 지식 등에 관한 ‘전수’가 불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의 운동이나 계보 같은 것에 대한 전수가 자치도서관이라고 옛날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알음알음 아는? 이것에 대해서 알려줄 선배가 있으면 내가 아는 거고,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고.(D)

페미니즘 모임뿐 아니라 학생회와 같은 경우도, D에 따르면 “당장 2년 전에 일 했던 사람을 연락하려면 연락이 안”된다. D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없어지면서 페미니즘 운동의 “맥 자체가 끊겼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D가 속한 단체와 다른 신생 단체들이 “창세기를 쓰는” 중이다. N은 이렇게 세대 간의 전수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이,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후 학생 운동과 학생 조직이 줄어든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다들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조직적 기반이라는 게 무너진 상태였고,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생 정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다 줄어든 상태에서 졸업한 선배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물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전수해줄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때쯤에는 한창 이제 그런 대학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여 가지고 대학 자체로서도 이제 그런 자원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웠고, 관심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태였었던.(N)

여성주의적 지식과 운동의 전략에 대한 세대 간 ‘전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학생 사회 모두의 ‘조직적 기반이 무너진’ 맥락에서, 거의 유일하게 운동의 동학을 유지하려는 학내 페미니즘 운동은 자주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진다.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교칙 아래에서 ‘여학생 휴게실 문제’나 ‘생리 공결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학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거리이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역시, ‘성평등한 대학교’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역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남학생들의 ‘단톡방 사건’을 비롯한 교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총여 만들기’ 운동은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 선거본부에 대한 이른바 ‘불링’(bullying)을 비롯한 폭력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총여 관계자들이 다시 학내에서 고립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많은 대학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응할 수 있는 교내 기구나 전문가가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주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내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네트워크, 선배와 후배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네트워크들이 씨실과 날실처럼 이어져, 흩어져있는 ‘숨’ 자신들이 엮이고 묶이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2. 숨, 2030 페미니스트 직장인

센터를 방문할 그룹 중에는 ‘숨’실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2030 영페미니스트 직장인들이 있다. 이들은 SNS 상의 페미니즘에 활발히 반응하는 한편, 자신이 속한 직업 세계에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엮어 나가면서 현장의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들은 전업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기보다 남성중심적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등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유리천장, 여성배제적 기업문화, 열악하고 착취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한 ‘숨’ 실공간이 필요하다.

가. ‘숨통’으로서의 공간

2016년 가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디자인, 기획, 개발 등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여성들이 모였다. 15명의 멤버로 시작한 그룹은 현재 5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 10 월에는 참가자 180명 규모의 대형 컨퍼런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초기 15명의 멤버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일터에서 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를 공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 알음알음 멤버를 늘려갔다.

저는 제 일을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일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운이 따랐던 것은 친구한테 제가 살아 온 삶의 궤적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자기 회사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처음에 모였었던 사람들 중에서 둘, 셋 빼고는 제가 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때 앉아서 한 네 시간을

그 동안 되게 한이 맺힌 걸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다님으로 인해서 권고사직 엄청나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디자이너인데 여자라서 계속 승진 못하고, 하는 일에 대해 후려치기 당한다든가.(O)

“제 일을 너무 잘하고 싶”다는 이들에게 남성중심적인 일터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 폭력과 억압의 언어화, 공론화, 투쟁의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위험에 대한 이들의 감각 또한 “스타트업을 다님으로 인해서 권고사직 엄청나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디자이너인데 여자라서 계속 승진 못하고, 하는 일에 대해 후려치기 당한다든가” 라는 말처럼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부당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이들에게 최우선적 과제는 안전하게 살아남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동체를 갖기 위한 활동, 둘째, 일터에서 사용가능한 노하우와 이직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이 중요해진다.

2030 직장인 페미니스트들은 먼저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는 ‘숨통’으로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연구참여자 O는 대학 중 페미니즘 강의를 듣고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과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O가 직장인으로서 느낀 절망감은 자신의 여성주의적 신념체계와 현실의 경험이 유리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가 처한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내 인구는 서로를 참조체제로 삼아 의지하고 모일 수 있다. 반면, 민주적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많은 기업들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는 것 자체로 커리어를 위협받는다. 따라서 페미니스트의 고립은 거의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고립된 이들은 페미니즘의 끈을 이어나가거나, 일터에서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 언어를 갖추기 위해서 주로 트위터를 사용한다. O 또한 해당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트위터 이용자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익명의 특성이 강한 온라인 페미니즘은 인터넷 상의 이슈에는 매우 반응이 빠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현실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위협에 연대체가 되기는 힘들다. 2030 직장인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바라는 바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 일터에서 가장 시급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교류도, 반대로 페미니즘의 학술적 지식만 전달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O가 엮어낸 조직 또한 정확히 이러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서너 시간 동안 회사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털어놓고 페미니스트 동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세한 맥락을 설명할 필요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자신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중소기업이라는 노동 공간과 그곳의 남성 연대가 만들어낸 노동 환경이 설명 불가능했던 자신의 경험을 직조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모종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서로 다른 중소기업에 흩어져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공동체에서 언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에게 즉각적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 등에 연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O는 조직의 차후 활동으로 산업군의 특성에 맞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기업 내 성폭행 사건 터지면 내가 그 일이 나한테 생기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생겼을 때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미 나와 있는 엄청나게 좋은 자료들도 많지만, 테크라는 분위기에 맞게, 중소기업이라는 작은 인원에 맞게. 실정을 아는

페미니스트들이 뭔가 재편집해서 웹으로 만들고.(O)

나. 이직 네트워크와 일터의 노하우 공유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게 일터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어떻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생존은 어떻게 이직하여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지와 관련이 깊다. 인력의 이동이 많은 스타트업의 특징과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이 만나 이직 전략을 만들어낸다. 상당수의 2030 직장인 페미니스트들은 조직에 대항하여 지난한 싸움으로 소진되는 것보다, 자신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측과 협상하거나 조직 내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공론화 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직이라는 제 3의 선택지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이직을 자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업계 내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화를 방증한다. 동시에 이직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일은 더 넓은 여성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냥 같이 일하다보면 친해져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직 알선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여성들한테 각자 자기 기업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옆자리에 있을 사람을 뽑는데, 페미 안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증이 된 실력이면 사실 당연히 페미니스트 뽑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와, 저 회사가. 이런 것들을.(O)

내년에는 계획이 있는 거는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 실무 관련해서 모의 면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취합이 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 했던 행사와 똑같은 행

사를 한 번 더 할 것 같고.(O)

같은 산업에 속한 직업군이라는 공통의 감각은 이 분야 페미니스트 간의 쉬운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가 큰 규모로 확장, 유지될 수 있는 이유로 작동한다. O의 조직이 주최한 첫 행사에 무려 180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근무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왕이면” 페미니스트에게 자리를 소개한다. 네트워크 자체가 활발한 구인 구직의 장이 되면서 특정한 산업/직군 내 여성들이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작동한다.

구인, 구직이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활성화, 유지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라면 여성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는 더 많은 산업 내 종사자들이 모인 곳에서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소속되면서 일자리 정보를 알게 된 페미니스트가 안전하게 커리어를 이동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일자리 정보를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던 여성들도 점차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일 하고 있는 여성 기획자 네 명을 리크루팅 해서 섭외를 하고 그 분들이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처음에 잡았던 컨셉 자체는 이 네 분이 본인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건 하지 않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 많은 필터들이 있었고 어찌됐건 그걸 이겨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모집을 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었고.(O)

180명의 참여자를 모으며 성황을 이룬 여성 기획자 대상 컨퍼런스의 4명의 연사 중 2명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거나 페미니스트

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소수자로서 그들이 수많은 “필터”와 장벽을 넘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페미니즘의 의제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그들의 발언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생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일터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면서도 개인적 리스크가 적은 노하우를 공유한다.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 밀착한 이야기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의 네트워크는 여타 여성주의 활동 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지된다. 여타의 단체들이 주요 정치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내부의 결속도 다지는 형태라면, 이들은 일자리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내 생존망을 확장해나간다.

이와 같이 2030 명 페미니스트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느끼는 성차별과 억압을 언어화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한다. 이들이 의욕적으로 흡수하는 지식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강남역 이후로 세상에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메갈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이 페미라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생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채택한 사람과 이걸 이론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지식으로서 전달하는 방식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정희진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셨지만 저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연은 ‘한남의 연애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하신 강연이거든요. 그런 게 제일 딱 꽂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이론서의 난이도와 제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읽는 책의 난이도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대학 때 접한 것이 훨씬 어

려움: 연구자). 그래도 이게(지금 활동하면서 읽는 책: 연구자) 훨씬 더 뭔가의 힘이 있고 저한테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난 유명한 분이 와도 모를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O)

제도권 여성학 교육이 일상의 폭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쩌면 쉽고 효과적인 매뉴얼인지 모른다. 2016년 이후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하 입트페)』(이민경, 2016)을 비롯한 페미니즘 전략서들이 강세를 보인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전략서에 등장하는 단발성의 해결책들이 가진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혁명적 변혁에 앞서 오늘을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의 장기적 지속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생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감각이다.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모임에서 성토대회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업무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크게 기대 안 해요. 그것까지 기대를 하면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이 외롭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O)

2030 직장인들에게는 ‘숨통’이 되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상호의존적인 전략을 통해 페미니스트에게 안전한 일터를 찾아 나서며, 적대적 권력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만들 수 있다. 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커리어를 지속시켜 나간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후배 페미니스트들 또한 생존해 나갈 것이다. 이들에게는 인위적으로 연대를 요청/요구하는 형태보다는 ‘플랫폼’ 형태의 연대를 모색하는 편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비슷한 직군 혹은 산업 분야의 페미니스트들이 한 데 모여 업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다. 첨예한 문제를 둘러싼 이슈 파이팅보다는 일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소한 해결비법을 공유하는 식으로 느슨한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들에게 그러한 장소는 ‘겨우’ 숨통이 아니다. 삶을 지속시키는 산소일 것이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O는 페미니스트 기획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장소 섭외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스타트업 행사들 해주는 장소들. 거기다 메일을 썼는데 성평등이 위협해서 행사를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장소 섭외가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다른 곳도 알아봤었는데 그 때 예약이 없는 걸 뒷 경로로 해서 다 파악을 해놨었는데 계속 메일을 씹고 전화도 안 받고.(O)

행사 진행하기 위한 장소라는 개념이 180명 대상으로 굿즈(goods, 기념품 등을 일컬음: 연구자)를 제작하면 개인 집에 들고 있는 것도 되게 무겁거든요. 사실 창고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강남역 1주기 행사 때 만들었던 깃발 이런 것도 누구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기로 쓸 수 있는 엄청 큰 사물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O)

연구참여자 O는 공간을 확장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뿐 아니라 행사를 위해 만든 굿즈나 활동

용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전문 활동가로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networking)

한편, 2030 페미니스트 직장인 여성들을 다른 활동가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어떤 멤버들은 연구참여자 G의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룹의 페미니스트들은 언제든 범주를 이동하고 관심사와 운동 방식을 공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저희 단체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구참여자 G가 속한 신생 페미니스트 단체) 같이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 분들 통해서도 다른 단체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구들끼리 사교모임이었는데 그 안에서 맨날 화내고 이럴 바에야! 이러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일한다는 것도 제가 너무 환상이 심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O)

20대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몇 가지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이슈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완전히 그것이 세계 일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필드이고. 그게 페이스북든 유튜브든 아니면 트위터든 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는 건 다 항상 온라인에서 나오는 사건. 그래서 그 온라인 쟁점이 현안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S)

연구참여자 G는 신생 페미니스트 활동 단체에 속해 있다. 이곳은 온라인 페미니즘 모임으로 시작하여 지속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통

적인 여성주의 활동 단체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중이다.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은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기보다 일종의 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발을 걸치고 참고하며, 이용하는 장이 바로 온라인 페미니즘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모임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가 활동력이 왕성한 단체로 자리 잡은 G의 사례,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고립감을 이겨낸 2030 직장인 여성들, 그리고 G와 O의 단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인물들까지. 지금은 온라인 페미니즘, IT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2030 직장인, 보다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활동 단체들이 모종의 접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다. 다양한 여러 장(場)/단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멤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특히 고무적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공통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와 O의 조직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학창 시절 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O의 단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스터디를 조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경우, O의 단체가 필요로 하는 느슨한 네트워킹에도 참여하는 동시에 G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페미니즘 인식론 교육 등에도 모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들은 한 강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 자연스레 이들의 다층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도 출현할 것이다.

연구참여자 H는 이들의 새로운 운동 방식을 고려해, 활동 평가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O는 강남역 사건 1주기 추모를 위해 온라인에 포스트잇 월(post-it wall)을 마련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빼곡히 붙어 있었던 포스트잇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미지로 재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강남역 사건을 추모하고, 온라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그대로 디지털 아카이빙 할 수 있었

다.

2016년 출범한 ‘페미위키’의 경우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가 여성혐오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데에 반대하며 생겨났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는 네티즌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나름의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넷 상의 소위 ‘집단 지성’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반대하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위키를 만들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사건들과 개념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지식의 젠더적 불균형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웹에서 이미지로 구현된 활동이나 온라인에서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은 기존의 정형화된 문서로 기대 효과와 운동 방식을 설명하기 몹시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3. 씬, 유자녀 여성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유자녀 여성들이 경력을 잃게 되는 이른바 ‘경단녀’ 현상은 이제 여성들의 문제를 넘어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OECD 회원국 중 교육연한 대비 사회진출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지목된 이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는 경단녀에 관한 문제를 여성들의 낮은 경제적 활동비율에 따른 국가적 생산력과 경쟁력의 저하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여성들이 ‘사회적 존재’ ‘공적 존재’로서의 연결망을 놓치고 가정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묶이게 되는, 즉 고립적 존재로 위치하게 되는 데 있다.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재성 회복을 위해 센터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 여성주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요구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 대중화와 맞물리며 지금의 20~50대 ‘유자녀’ 여성들은 이전 세대의 여성들과는 달리 많은 경우 고등교육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20대에 여성주의를 접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이후의 출산과 육아 맥락 안에서 어떤 여성들은 “답답하고 막막”해하다가 갈증을 해소하듯 “애기까지 봐준다”는 여성주의적 지식생산과 실천의 장들을 찾아 나선다. 거기서 그녀들 역시 2030 여성들처럼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한다.

20대 초반부터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곧 바로 임신과 출산하는 그 2년 동안이 좀 괴로웠죠. 제가 원래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다 모든 활동이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되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시간들이었고. 한겨레 신문에 조그마하게 여성 민우회라는 단체에서 교육한다는 민우 여성학교라는 걸 한다는 거를 보게 됐고, 전화를 했더니 애기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상계동이었는데 마을버스 타고 전철 두 번 갈아타고 한 15분 걸어서 거기 충정로로 갔어요... 갈 때 되게 두렵고 무섭고 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데 나 같은 애기 엄마가 가서 뭘 할까 그랬는데... 이제, 애기를 업고 양쪽에 기저귀가방 우유가방 들고 이렇게 다녔죠... 한 번 다녀오면 애가 너무 무거우니까, 돌 무렵이었으니까 완전히 지치는데... 그것이 저의 숨통을 틔어주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달까...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고 되게 뭐 애기들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고 난장판인데도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는.(K)

“숨통”이 트이고 “여성, 환경,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일상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여성주의라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된 그녀들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며 이후 “동네”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시민활동의 풀뿌리 운동가로 서게 된다. K와의 인터뷰는 여성주의 지식과 여성주의 실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임을 보여준다.

제가 원하던 그런 여성, 환경,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방면에 그 12주짜리 강의여서 그거 마치고 이제 000(여성주의 시민단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에서 여성학 소모임, 책읽기 소모임 같은 거 하고... 2년 정도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면서... 동시에 한주에 한 번 씩 모여서 민우회에서 나오는, 작은 그 문건 하나씩 같이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련된 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다방면의 이야기 나온 거를 한 쪽짜리 같이 읽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좋았어요. 몇 개의 모임으로 분화가 되고, 5명이었다가 스무 가구까지 만들어져서 4개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막 재할용 분리수거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는데, 우리 아파트, 우리끼리 한 번 해보자 해 갖고 막 커다란 박스 구해다가 그런 것도 해보고. 애들도 서로 이렇게 공동육아처럼 돌아가면서 하루씩 봐주는 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K)

K의 “이런저런 실험”은 차차 안정적인 “구심점”으로서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그 공간은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조직화”해 내려는 의도를 전제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이런저런 실험”들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일상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원하는 여성들은 그 실천이 보다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지적인 요구와 “문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키는 ‘전략’을 강

구하기도 한다. 그 전략에는 여성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념적이고 지적인 요구, 문화적 요구, 그리고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둔 돌봄이 여성들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다.

되게 간절했던 것이 어떤 사무 공간, 사무실이 따로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거나 혹은 이제 필요한 강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디 교회를 빌려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바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소모임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OO여성학교를 시작했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들이 원했던 것들은 다양한 문화 강좌를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싶다...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도자기를 배우고 싶고, 무슨 그림을 배우고 싶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OO여성학교의 내용을 하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하나는 문화강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한 개의 강좌를 하더라도 계속 그 조직화에 신경을 썼죠. 한 8주간이든 10주간이든 강좌가 있으면 계속 우리 운영위원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그 수업 들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계속 친해지고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 지를 파악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회원가입 혹은 생협의 조합원 가입 이런 것들이 늘었죠. (K)

K가 여성학교를 만들어 지역 내 여성 조직화에 힘쓰는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함께 201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펼쳐진다. 이미 조직화되기 시작한 많은 여성들이 이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지만 J의 언급처럼 “돈이 많은 사업일수록” 남성

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대표직을 맡는 등 “집안”에 있던 가부장적 문화가 “마을”로 확산되는 등 마을 사업에서 성차별이 만연하게 된다.

돈이 많은 사업일수록 남성들의 참여가 높아요.(J)

30대에서 한 50대 중반까지의 여성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으로도 창업에 되게 또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찾동'사업 같은 거 하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의제들을 찾아내서 그걸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데 성별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여전해요.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책임자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적 발언들 하고.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불안하게...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막상 이제 우리 의논한 거 발표해야죠, 그러면은 남자니까 당신이 하세요, 하고 그 남자는 별로 참여도 안했는데 그런 거 마다도 안 해요. 일어나서 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체 대표는 남성들이 거의 다 하거나. 지원단 같은 경우도... 실무들은 다 여성들이 하는데 지원단의 책임자는 대부분 또 남성이에요. 이게 집안에서 있던 가부장적인 문화가 마을에 와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대로.(K)

“집안”에서의 가부장적 문화가 “사회”로까지 확장된다는 K의 통찰은 보다 정확하게는 집안과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서로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성인지적 감수성과 실천을 위한 교육과 개입은 마을 단위에서 그리고 마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양쪽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27조 예산을 쓰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주민 참여 이끌 수 있을까...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직원교육과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J)

지역 내 여성주의적 조직화를 위해 ‘쉼’들을 대변하는 인터뷰이 K, J, P는 어린 자녀들은 물론 단체에 대한 여성들의 소속감을 위해 돌봄과 마을 및 중간지원 조직 단위에서의 여성주의적 감수성 함양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 K, J, P 모두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잘 짜여진 집중교육을 강조한다. ‘스타 강사’ 중심의 행사성 혹은 단타성 강의가 아니라 강의, 비판, 그리고 성찰이 어우러져 일어날 수 있는 토론 중심의 학습 생태계의 구성을 포함한다.

나. 잘 기획된 장기간의 페미니즘 학습생태계

여성주의 지식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강렬한 효과성 때문인지, 이 분야 전문 강사에 대한 묘사 중에는 ‘스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스타급’ 강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와 자기 성찰적 경험과 고백들은 희노애락의 정동들을 넘나들며,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들을 자주 ‘수동적 청중’으로 남겨둔다. 이것은 물론 여성주의 강사들의 힘 있는 강의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자주 그들의 강의를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이벤트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보충 설명인 듯 인터뷰이들은 오래고도 집중적인 토론중심의 여성주의 강좌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는다.

한 명이 6강, 7강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여성주의가 강좌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좌 하나 들어서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이 강좌를 들으면서 동시에 실천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지. 몇 년 동안 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0000(강사)가 6강을 쪽 해줬거든요. 이게 여성주의자 그룹을 만드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지.(J)

내가 쪽 해 왔던 상담 활동 자체가 일반 여성들을 거의 100 시간가까이 여성주의 훈련을 시켜 가지고 상담에 임하도록 도운 거였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마을에서 주민과의 접점을 형성할 때 당시에 했던 여성주의 훈련들이 도움이 돼요.(P)

지역별로 인권교육, 성교육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 교육, 성인지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훈련되려면 4,5년 걸리는 거예요. 3년은 매주 여성주의 세미나 하면서 공부해야 아이들에게 교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하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교육은 강당에 몰아서 한꺼번에 방송 교육하는 걸로 대체되는 거죠.(K)

이렇듯 여성주의 강좌, 세미나, 워크숍 등이 집중적으로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동의한다. 거기에 더해 여성주의적 지식과 실천의 생태계가 한군데 집중되며 외연확장에 방해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찾아가는 학습 생태계’가 그것이다.

다. 지역의 인재발굴과 활용을 위해 ‘찾아가는’ 학습 생태계

(성평등 활동지원)‘센터’를 굳이 한자로 옮기자면 ‘중심(中心)’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성평등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자원이 이곳에

모여 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다른 유사한 목적의 공간과의 위계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계는 여성주의적 지식 생산과 실천이 일상의 맥락으로 확장되는 데 적당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이들은 “찾아가는” 여성주의 강좌를 제안한다. 이것은 여성주의 지식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표면적인 목적과, 지역의 여성주의자 발굴 및 활용, 지역의 여성주의 지식과 관련한 ‘수준’에도 적합하고 맥락적인 교육실천이 가능하다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지역에 여성주의 그룹이 없으면 여성주의 강좌를 열 주체가 없는 거예요. 참가와 홍보는 누가 하느냐. 지역에 이런 강좌를 열겠다고 하면... 센터가 있는 은평은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여성주의 조직이 있다면 그런 곳 거점을 몇 군데로 정하고 강사지원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대 입구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있거든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꼭 은평에서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찾아가는... 공간을 꼭 자기 공간으로 와라. 이런 거보다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지역 수준에 맞는 교육도 가능하고. (1)

그런데 인터뷰이들이 언급하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여성주의 강의에 대한 필요성은 참가하는 여성들의 여성주의적 의식 고양만을 목표하지는 않는다. 언급했듯이 고양된 의식을 가진 “흩어져 있는” 개별 여성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상을 성평등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성주의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데 수반되는 것이다.

라. 여성들의 조직화와 리더십 함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여성주의적 진리 중 하나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해결은 언제나 늘 연대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다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주의적 지식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으며, 인터뷰이들은 이를 위해 센터가 여성들의 조직화와 리더 발굴과 육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한다. 그러한 노력은 때론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도 포함한다.

흠어져 있는 개인으로서는 조직화되거나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 어려워요.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든 나와서 조직되는 건 다르잖아요. 온라인 카페로 모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꺼내서 만든 느슨한 조직이든, 네트워크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 여성들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이 여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인지 단체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리더 교육을 하는 거잖아. 꾸준히 서포트해주고, 지역에서 뭘 하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그 단체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네트워크도 만들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J)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거는 주민조직 하는 철학과 조직가의 역량을 학습하는 훈련하는 거였어요. 실제 주민을 만나고 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지역에서 실천을 하고 이런 거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여전히 지금도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때 10명에서 집단훈련을 한 건데 한 4시간정도, 10번 넘게 만나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 안에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특히 조직하는 리더로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거를 딱 맞춤형으로 했

어요. 워크숍 방식으로. 굉장히 노련한 훈련 트레이너가. 그게 되게 올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런 게 도움이 됐고 당시 여성재단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20일정도 유럽 연수를 했거든요 4개 지역 10개 주민조직을 갔어요. 그때가 2007년인가? 다섯 명이 같이 갔는데 그것도 저한테 되게 많은 자극이 됐죠.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머리 하얀 조직가들 만나면서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P)

지금까지 대학 내 페미니스트, 2030 직장인 페미니스트, 그리고 유자녀 여성 11명과 그들이 처한 성차별적 상황 혹은 성인지적 감수성이 필요한 상황을 센터에 대한 요구와 접목하면서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진행할 활동 내용을 다음 III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Ⅲ. 성평등 활동지원 센터의 활동 지형 제안

1.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을 위한 허브

시작단계부터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여성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잘 기획된 이론 강의이다. 그러나 '어려운' 여성주의 이론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강의는 기초와 심화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센터는 여성주의 전문가이면서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은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의 역량을 모으는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문화'를 곁들인 기초 페미니즘 강의

풀뿌리 활동 영역의 여성주의자들은 마을 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를 하거나 마을 기획단 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화는, 성별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요.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의 책임자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막 그런 발언들 하고.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불안하게. 저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데.(K)

마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정적인 환경을 알게 되고 또 지원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는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은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 또는 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남성 활동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성 활동가 역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게 된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한계가 그건데. 그리고 여성들이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예요. 막상 이제 우리 의논한 거 발표해야죠, 그러면은 남자니까 당신이 하세요, 하고 그 남자는 별로 참여도 안했는데 그런 거 마다도 안 해요. 일어나서 또 발표하고.(K)

때문에 센터에서는 성별을 아울러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기초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이러한 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여성운동의 영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중간지원조직에 일하는 실무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불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반감이 생긴다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무 여성 위주로 이야기한다거나 강사가. 그런 점을 비판해가는 거예요. 강사가 말했던 것의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얘기를 하니깐. 일단은 여성 운동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게, 여전히 남아있어서.(K)

따라서 이러한 의무 또는 권고사항으로서 기초 교육 커리큘럼은 스스로 여성주의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여성주의 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 K는 영화 등을 활용한 접근과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제안했다.

다큐 몇 편 상영하고 감독 모시고 얘기하고. 그니까 성평등이란 주제를 가지고 문화로 접근할 때 영화라는 콘텐츠가 부드럽고 좋잖아요. 재미있고 애깃거리도 많고. 그런 방식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 제가 그 사람들 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는, 일방적인 강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더레이터 방식으로, 워크숍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몇 번은 진행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했는데 나보고 책임지라고 자기 뒤통수 맞았다고, 완전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이 뭐 어찌고저찌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 어려운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내가 받았던 성차별 중에서 가장 심했던 걸 한 번 떠올려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차별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나는 너무나 집에서 귀하게 자랐고, 결혼했는데도 시집에서 날 너무나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딱 게임으로 가갖고 학교에서의 성차별, 어릴 때. 가정에서의 성차별, 아니면 또 직장에서, 아니면 또 기타. 이렇게 모서리 게임 하잖아요. 거기서 떠올려보라 그래서 다 가요. 그러면은 말도 못하게 심했던 일들이 다 나오더라고 거기서. 어렸을 때 되게 젊은 사람인데도 남동생하고 먹을 것 갖고 차별받은 것. 나이 많은 사람들 50대, 60대도 더 심하고. 그거 하면서 또 눈물 찼끔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K)

K는 현재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강사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 확대 이전에 대중 혹은 여성주의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어렵지 않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안정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나. 활동가 혹은 강사양성을 위해 커리어 개발과 병행된 심화 페미니즘 강의

인터뷰이들이 말하는 ‘스타’ 강사들은 현재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재들이다. 여성학이나 젠더중심의 사회과학을 전공한 여성학자들은 여성주의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운동성을 상실한 데 대해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른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학이 제도화 되었지만 학계에서 여전히 소수자적 위치에 머물면서 학자로 훈련 받은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지지 않았고, 학문과 운동의 분리 혹은 위계라는, 한국 여성계의 한계 때문에 그 양진영을 불편하게 오고가야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러한 모순 해결을 위해, 또한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계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기초 성인지 교육은 물론, 대학 수업이나 다양한 맥락에서 여성주의적 지식에 일정정도 친숙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 심화 세미나 등도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의 역량에 기반 해 기획, 실천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소는 물론 물적 지원에 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한다. 인터뷰이 O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강의가 여성주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과 네트워킹의 장이 되도록 한다면 생존과 유리되지 않는 여성주의적 지식의 유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강좌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센터에 의해 잘

정리(아카이빙)된다면 센터는 새로운 연구자와 강사가 양성되는 허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지식과 활동의 역사의 집적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화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참여한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밀착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상호 발전이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준 높은 강의라 하더라도 단발적이고 일방향적인 과정으로 일어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는 ‘여성주의가 한 인물(강사)로 구체화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어떤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인물로 구체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심화 과정을 작년에 해 봤던 것이기도 한데 시험적으로. 그 때는 저랑 000 선생님이랑, 0000선생님이랑 셋이서 4강짜리 기획을 해서 했었어요. 안전하게. (...) 사실은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물론 강의는 좋았어요. 평가는 좋았는데, 이게 새로운 강사진을 인큐베이팅 한다든지, 다음에 이 강의를 맡을 다른 사람을 좀 더 끌어들이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S)

S는 여성주의 교육의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수강생들의 배움이며, 둘째는 강사 재생산이다. 소수의 ‘스타’ 강사에 의존하는 강의는 수강생들에게는 훌륭한 배움의 장이었을지 모르지만, 후속적인 인재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해도 4강의 강의를 들은 뒤 다음에 그 강의를 맡

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강의를 듣는 성평등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엘리트로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세미나가 필요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종종 기획하게 되는 대학 내 페미니스트나 풀뿌리 활동가들은 성인지 교육의 확장을 위해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 강의를 요청할 수 있는 강사가 적기 때문에 늘 비슷비슷한 강사에게 늘 비슷비슷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여성주의 교육을 확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강사 풀 재생산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연구진들을 더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갈을 분석하는 대학생 연구자들이라든가 대학원생 연구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걸해서 포럼 같은 거를 열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야기가 그냥 흩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되고, 이것이 정말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조금 더 이론적인 결과물 같은 걸로 놔두고, 이것이 좀 효력이 있는. 이것이 같이 융화되지 않으면 사람들만 남고 기록은 없어진다는 거, 아니면 기록만 남고 사람은 없어지니까.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돼야 할 것 같다.(Y)

그렇다면 어떤 강사 양성의 방식을 택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강사 양성’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는 강사가 되는 법에 대해 누군가가 일방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형태는 아니다. 현장의 맥락에 밀착하여 이를 지식화하는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2절에서 언급할 아카이빙/네트워킹으로 이어진다. 특히 “사람들만 남고 기록은 없어지”거나, “기록만 남고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전자가 활동 내용이 아카이빙되지 않아 지식 전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후

자는 “맥락 없는 매뉴얼”을 지칭한다고 봐도 좋다. 매뉴얼과 맥락, 지식과 현장을 연결하는 강사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양성될 것이다. 이들은 여성주의 운동 의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경합되어, 어떤 매뉴얼로 남았는지를 이해한다. 계보화된 지식은 확장되어 새로운 지식 생산의 장으로 기능한다.

2. 아카이빙과 네트워킹

대부분의 영(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창세기”를 쓰는 심정으로 여성주의적 지식을 생산하고 운동으로써 유포한다고 말한다. 여성주의 지식생산과 운동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내 기록된 ‘계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센터는 이 점에 착안하여 센터의 활동은 물론 이전의 활동과 지식체계까지도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더 이상 후속 세대의 여성주의자들이 “창세기”를 써 내려가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면 한다.

각자 자신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하는 맥락에서 새로운 성평등 활동가와 이전 세대 사이에는 현재 쉽게 메워지지 않는 거리가 존재한다. 이것은 주로 온라인에서의 싸움, 즉 ‘키배’를 해온 사람이 갖는 언어적인 한계로 이해된다.

언어가 되게 많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난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자기가 겪은 굉장히 억압되고 답답했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연원을 둔 온갖 문헌들을 다 찾아서 저런 단어를 발명을 하는구나, 되게 힘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든다 하면, 이 언어가 필요했던 순간을 협의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거나 좀 상황

을 넓혀서 이 언어가 이렇게 쓰이면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까를 같이 내다보면서, 용례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협의
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W)

영영 페미니스트의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오프라인으로 나
왔을 때 이것이 내재한 분노와 절박함은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없는 언
어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성 여성주의자 활동이 해 온 노력을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쉽게 거부하거나 비난하고, 이것은 또다시 기성
페미니스트들이 갖는 영영 페미니스트들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 이해되
기 쉽다.

영영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이나 언어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쫓아내지 않은 면 같은 것들을 제시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거부라고 느끼거나, 더 나아가 언어의 부정, 내지
는 더 나아가 인터넷 논쟁에서는 기성 페미들 존재의 삭제,
(...) 기성 여성주의자들이 남자들이랑 다 타협해 뭐 이렇게 생
각하거나, 경찰이랑도 대화를 하고 어처구니없는 조정을 해, 이
런 비난.(W)

그러나 여성주의자 세대 간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2015년 이
후의 페미니즘은 성 전쟁(gender war)의 성격을 가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영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입증의 책임
을 여성이 지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만 하는 구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 기존의 성평등 활동이 제도화를 거치며 이루어 온 성과가 실질적
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새로운 페미니스트들
은 온라인의 유연함을 활용하여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피

해에 대해 직접적인 저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그냥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싶었다면 그냥 민우회에 가입한다던지 그런 기존 단체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대학 내 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자보를 붙였는데 누가 찢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D)

온라인에서부터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많은 20-30대 여성들은 이러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프라인에서의 강연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힘을 키우려 한다. 하지만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축적된 여성주의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맥락에서 단타성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나 학술적인 교육은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다.

책 말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려면. 버틀러가 한국의 뭐 운동을 가르쳐주지는 않으니까. 영감은 주지만. 지금 서점에서 이렇게 입트페 같은 게 잘 팔리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강의를 할 때도, 강의를 할 때 들어오는 질문 같은 거는 되게 구체적이예요. 근데 구체적인 걸 찾을 데가 없는 거지.(N)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많은 올바른 말과 굉장히 많은 페미니즘의 어떤 명제들이 약간 평면 위에 많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 같은. 그래서 이게 구조화되거나 아니면 계보화 되거나 이

런 식의 기회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온라인 페미니스트인데 강의가 너무 듣고 싶고. 왜 왔냐고 물어보면, 다른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계, 지속되는 관계 안에서의 페미니즘이 자기들의 출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이긴 한데 사실 '그런 기회는 의외로 적은데?'라고 생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S)

연구 참여자 S는 2016년 이후 자신이 강연한 지역 기반의 페미니즘 강좌에 20대 여성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이야기한다. 기존의 강좌 참여자들이 지역 기반 활동가들 위주였다면, 강남역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 '무작정' 찾아온 젊은 여성들의 수가 급증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페미니즘을 시작한 여성들은 다양한 설명체계와 언어를 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리되기는 매우 어렵다. 트위터의 '140 자(字)'는 '사이다 발언' 수집에 적당할지 모르나 그 이상으로 사고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페미니스트들 또한 이러한 '계보 없음'의 상태에서 지식 정리와 계보화의 목마름을 느낀다.

또한 온라인 페미니즘은 특정한 사건에 '화력 지원'을 하는 등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데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것이 익명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연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인간적 유대를 쌓으며 서로 언어를 맞춰갈 시간이 있다. 반면, 온라인 활동은 이러한 시간이 부재하다. 관념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방식은 치열한 사유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나 이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언젠가 자신이 단죄되고 평가받는다라는 불안감과 호전적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다. 온

라인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주의 지식의 계보화와 인간적 연대에 대한 갈증 모두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홍보되는 외부 강연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니즈를 반영한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는 ‘아카이빙’과 ‘네트워킹’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게 세미나가 되든, 강좌가 되든,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묶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뭐 과거에 굉장히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과거에도 다 한 차례 나왔던 얘긴데 그것들을 아카이빙 하거나 모아가지고 전하는 역할들을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런 식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N)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오프라인에서 기성 여성주의자들과 만나면 아휴 언니들이 뭐 끈대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괜히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잘 하세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전 너무 궁금하고, 영 페미의 세대 때는 뭘 했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반응이었고, 그 여성주의 조직 관련한 문제들도 너무 궁금한데. 저는 그러니까 영영 페미들이 일단 그 조직 관련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어요.(G)

저희가 (신생 단체)한테 뭘 해드리기로 했냐면 이 단체 운영, 조직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거기도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하는 체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술 전수,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바쁘

고, 또 이것을 위한 기본 자료 같은 것, 그러니까 다른 단체한테 이거를, 사실은 역사상 되게 많은 단체들을 이렇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MOU를 맺어 본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다보니까는 이거를 위한 자료화라든지 이렇게 딱 어떻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할지를 좀 잘 못했어요.
(W)

오랫동안 적은 인원으로 “너무 바쁘”게 활동해온 기존 단체들 역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생 단체들이 하는 ‘계보 전수’에 관한 요청에 대해 쉽게 응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자료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인식론의 공유에 대한 요청이며, 여성주의 역사에 대한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의 증언에 대한 요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속 들으러 다니는 거고, 새로 책 나왔다 그러면 책 읽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들도 다 완전 이론적인 기반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는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다 옛날 기사를 뒤져야 되거나 이런 식이고. 예를 들면 지금 분리주의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레즈비언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을 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어떻게 와서 지금 다시 또 여기에 왔나 (...) 사실 지금 되게 다른 방향이 필요해요. 계속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전에 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매뉴얼들이 맥락은 사라지고 매뉴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아무렇게나 적용되기도 하고, 개념도 다 막 뒤바뀌고 그래서 요새 2차 가해라든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왜, 무슨
취지에서 이것 만들었는지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N)

N은 “맥락은 사라지고 매뉴얼만 남”게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주의 운동은 언제나 성폭력 등의 급박한 사건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건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여성운동은 제도화된 대응 방침들과 매뉴얼을 갖추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매뉴얼에는 당시의 운동에서 얻은 교훈과 특수한 상황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뉴얼을 특정하게 만들었던 이유, 맥락, 논쟁 과정이 삭제된 상태에서 일련의 번호와 글자로만 남은 내용들은 문제적이다. 이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활동가들이 교조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는 또 다른 매뉴얼을 생산하기보다, 매뉴얼과 매뉴얼 이행자들을 연결하고 그 맥락을 이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아카이빙’과 ‘네트워킹’은 바로 이러한 맥락 만들기의 일환이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네트워킹을 하고 자신들이 다양한 사건과 의제들에 대응했던 방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내용 자체를 아카이빙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흩어져 있는 경험들이 한데 모여지고 활동가들이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동료적 관계’에 대한 요청이다. 센터의 물질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페미니스트들이 참조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접근권, 지나간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 듣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그것에 연결되는 일원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토대와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학생운동이 했던 역할이지만 그러한 장치가 모두 사라진 지금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입구가 없는 장을 마주하고 있다. 기존 단체들 중 적극적으로 이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러한

단체 중 하나에서 활동하는 N은 단체 단위의 만남에서는 그러한 전수가 일어나기 어렵고, 다른 방식의 보다 장기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사실은 제대로 20대 페미니스트들을 뭔가 양성, 말이 이상하지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윗세대들이 뭔가 쏟아 부을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원이든, 계속 만나는 거든, 그럴 때 단체 떼고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 누구로서 가는 것과, 그냥 활동가 누구로서 만나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N)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할 주제별 심화 강의 및 세미나와 아카이빙은 이러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은 단체 단위의 만남이 아닌, 200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이 해 왔던 것처럼 깊이 있는 연결과 전수가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교육이다.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만남과 전수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N은 여러 단체의 자료들을 통합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2015년부터 계속 만나온 사람들 들으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러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 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어디 가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N)

그게 다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 있고, 단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한군데다가 모으지 않더라도, 어떤 한 주기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역사가 뭐가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방향이 논쟁이 뭐가 있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어떤 팀이 꾸려진다면 이 팀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역사를 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거를 같이 엮어내는 작업, 주기를 잡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다더라 어떻게 있다는 건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 자료로만은 파악될 수 없는 얘기들을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같이 방향을 찾아가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N)

이것은 아카이브를 갖출 겨를이 없이 활동해 온 기존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

저희 스스로가 아쉬운 부분. 저희가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도 이십여 년 된 단체라고 하지만, 저희의 핵심적인 것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상담일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활동가들의 그 들고 나기의, 자원활동가들의 활동 연혁들과 그 시간들은 막 증명서도 많이 발급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지 되게 잘 안 돼 있어요.(W)

N은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과정이 있어야만 보다 장기적인 호흡을 필요로 하는 심화된 운동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피해에 대항하거나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의 운동 이상의, 주제별로 심화된 강의 또는 세미나와 아카이빙을 통해 내용을 만들어가고 방향을 제시하며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다.

예를 들면 지금 낙태죄 폐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게 그런 건데, 이게 1-2년 활동 한두 번에 갑자기 정부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뿔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러한 과정이 쪽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인데. 이거를 거의 한 6년, 길게 보면 한 6-7년 짧게 보면 3-4년 정도들을 이 내용을 계속 이제 모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뭔가 국면이 생겼을 때,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의 축적된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N)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면 이것은 동료들 만들어내는 과정, 온라인에서 강렬하게 시작되었던 성 전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성평등은 지속적인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기 힘든 장기적이고 지난한 프로젝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를 통해 불이 붙었던 초기의 '화력'은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어떤 걸로 가장 지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싸우고 끝나잖아요, 사실 이 활동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한 거 자체는, 하면 하기는 하는 건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진 않잖아요. (Y)

애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우울해져. 애들이 요새 조금 집단 히스테리 상태야. 왜냐하면 2015년부터 젠더 워(gender war)

를 오래했잖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는 없고, 성폭력-성희롱 사태가 계속 나오잖아.(H)

지치는 순간이 오고, 아무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동료의 존재, 그들과의 네트워킹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내가 잠깐 일을 하다가 와도 이 공간이 유지되고 있어, 아니면 내가 떠나더라도, 잠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공간은 계속 유지될 거야, 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이 마음. 저는 이것이 신뢰관계가 있는 한, 이 동료관계는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Y)

샘터로서의 센터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단체들로 구성된 페미니즘 지형에서 한 발짝 벗어나 페미니즘 운동의 입구로서 동료를 만나고, 역사를 전수받고, 참조 체계를 형성하며, 긴 호흡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떠나더라도 그 곳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이 마를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붙었던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은 그 불이 꺼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장인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학내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D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네트워크를 첫 번째로 꼽는다.

일단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드는 걸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꼭 페미니스트들 간은 아니더라도, 저는 학내 페미

니스트 모임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 모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 끼리 뭔가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걸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D)

학내 페미니스트로서 겪을 수 있는 고립감과 위협으로 인해 많은 학내 페미니즘 모임은 비공식적인 소모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공식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임들 간의 네트워크는 활발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또, 당장 “이거를 일 년 동안에 일을 더 끌고 갈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찾아낼 수 있을까” 하며 모임의 존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네트워크 조직은 요원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절실한 일이기도 하다. D는 특히 테마별 네트워크 형성을 필요로 한다.

단톡방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략) 단톡방 사건을 내가 인지를 했을 때에, 이거를 이미 공론화 해본 사람들은 법적 절차도 시도해봤을 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봤을 텐데 이제 막 공론화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험을 공유해주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대학에 단톡방 사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톡방 사건들을 어떻게... 이게 남성들의 locker room talk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D)

최소한의 매뉴얼과 지침이 있다면 각 대학별로 혹은 각 모임별로 모두가 “창세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 사건’에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할 수 있는 공론화 외에도,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와 페미니즘 소모임 간의 네트워크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주제별 강의와 아카이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3. 리더십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확장

여성운동의 확장기에 운동을 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은 P는 그러한 교육 경험이 자신에게 많은 자산이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P는 상담 활동으로 처음 성평등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훈련 경험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 활동 자체가 일반 여성들을 거의 100시간 가까이 여성주의 훈련을 시켜 가지고 상담이라는 매개가 지금까지도 나는 주민과의 접점을 형성할 때 당시에 했던 훈련들이 도움이 되요. 상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의 주체도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의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했거든요.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게 풀뿌리운동 하면서도 연결된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주의 조직 하는 데.(P)

기존 단체의 상근자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의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여성주의 장에 진입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활발하게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생 단체들의 안정성과 확장력을 위해서는 조직가, 즉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여성주의 조직을 만들고 여성주의 활동을 하려면 조직가가 있어야 되고 조직가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활

동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때 지역조직 만들 때 여성단체연합에 지역운동센터 거기에서 조직화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한 12회 과정, 한번 할 때 4시간 정도. 그때가 2006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한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조직훈련을 했는데 강사는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는 곳에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이제 여성운동 쪽에서는 처음으로 조직훈련을 한 거죠. 주민 조직하는 철학과 조직가의 역량을 학습하는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교육도 있었지만 실제 주민을 만나고 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지역에서 실천을 하고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해야 되지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여전히 지금도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때 10명에서 집단훈련을 한 건데 한 4시간 정도, 10번 넘게 만나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 올해 우리는 8번 정도 조직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훈련을 했었거든요. 활동가들이 되게 좋아했고 특히 조직하는 리더로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거를 딱 맞춤형으로 했어요. 워크숍 방식으로. 굉장히 노련한 훈련 트레이너가. (P)

그러나 안정적인 단체를 배경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에 비해 조직을 유지시켜야 할 “needs-base(필요 기반)”가 약한 새로운 세대에는 이러한 리더십 교육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여성재단에서도 이런 조직 뽑아서 리더쉽하고, 오리엔테이션 주고 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그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약간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뢰관계가 있는 조직은, 서로 알았던 사이거나,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우

리가 좀 더 해보자 하는 건 오래 가는데, 우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보자 하고 갑자기 뭉친 사람들이 있어. 그 때는 서로를 몰라, 아비투스를 잘.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 그것을 A로 해결하자, B로 해결하자. 어떤 입장에 대한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굉장히 퍼스널(personal)한 방식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일단 몇 명이 나가. 그럼 원래 한 스무 명으로 조직됐던 단체가 다섯 명 남아. 그러면 5명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원래 펀딩 받을 때 신청했던 거하고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일이 굉장히 몰려. 일에 대한 압박감과 내가 이것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널부러진 케이스도 있고. 놓고, 사라지고.(H)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조직되는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 즉 갈등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을 해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다양화와 각자의 상황별로 적절한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옛날에야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조직이 너무 없었지만 최근 3-4년 정도에 새롭게 등장한 풀뿌리 여성 조직들도 있고 또 조직가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의 각 지역에 발전 정도라든지 또는 활동가들의 자기 연차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분들에게 더 많이 물어 봐야겠지만.(P)

센터는 성평등 활동가들의 리더십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의 장으로서, 여성주의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리더십 교육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장의 외연을 넓히고 성평등 활동과 그 외 활동 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센터가 단지 일회적으로 거쳐 가는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아카이빙과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개인의 성장에서 더욱 나아가 네트워크의 확장으로서의 리더 사이의 연결, 특히 세대 간 연결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갈등은 새로운 단체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 단체에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면서도 발생하는데, 기존 단체 역시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해소해 내지 못한다. P는 이것이 단체 외부에서의 세대 간 만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리더그룹을 50대가 하고 있고 활동은 20대에서 충원이 되니까 중간 3-40대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세대 간에 더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소통도 안 되고. 이럴 때 조직 안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활동가들하고 같이 다른, 밖에 나와 가지고 다른 조직의 20대 활동가들은 다른 조직의 리더들을 만나고 우리 활동가들도 다른 조직의 20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이러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가져 주면 좋겠다. 단체 안에서도 세대 간 대화를 하고 그렇지만 또 단체 밖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리면 좋겠다.(P)

이것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여성주의 장 안에서 운동의 연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새로운 세대 역시 느끼고 있다.

너무 사실 필요해요. 만나면 물어볼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시기가 열리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성환경연대와 같이 뭔가 생리대 관련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성환경연대가 뭐하는 데인지 알아야 되고,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안이 왔네, 그래 만나. 그리고 일단 일은 해. 하지만 상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그래서 그거를 그 각각의 여성단체들의 특징과 이런 걸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G)

기존 세대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커뮤니티의 페미니스트 리더를 키워냄으로서 더욱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여성들이 결국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중에 구의원도 되고, 성인지 단체도 만들고, 학교 가서 만들고 성평등 마을 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리더 교육 하는 거잖아요. (...) 서로 활동 소개해서 네트워크하게 해주고.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닌 여성들이라는 걸 격려해주고.(J)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십 교육은 여성주의 장과 외부의 연결일 뿐 아니라 여성주의 장 안에서의 연결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의 참여자에게 장기적인 성장과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실무적 도움

가. 법률, 회계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초 강의

최근 생겨나는 학내 페미니스트 모임에서는 법적 지원이나 자문 등 전문적인 지식 역시 절실하다. 학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은 매년 일어나지만 제대로 된 ‘해결’은 있기 힘들다. ‘단톡방 사건’ 등 학내 성폭력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D는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한다. 성폭력 사건은 개인적으로 법의 힘을 빌리거나, 인권센터 같은 학내 조정기구에 넘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학내 기구에서도 완전한 ‘해결’이 일어나기는 힘들었다. 이 때 학내 페미니즘 모임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론화’ 뿐이다. D는 공론화 이외에, 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을 얻을 곳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00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안 거치셨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주변에서 이거는 성폭력 법 쪽으로 하려는 법적 처벌이 잘 안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중략) 그냥 피해자분들끼리 모여서 자보를 쓰고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서 공론화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회에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인권센터에 연락을 할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할 자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D)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매뉴얼과 절차가 없을 때, 피해 당사자나 학내 자치모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

적이다. 여러 대학과 연락하여 체계를 잡아가더라도, 학업과 사건 해결을 병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학내 페미니즘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는 이제 좀 체계가 잡혔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대리인을 구해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적는 것까지는 발달이 됐는데, 그 뒤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진상조사 보고서 쓰면 1학기 지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죠.(D)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내 성폭력 상담소나, 인권센터와 같은 기구가 있다. 하지만 상담소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다.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인권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일원화’되면서 성폭력과 성희롱과 같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특화된 기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 페미니스트 모임이나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자문 기구를 필요로 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법적 자문은 단순히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주력하는 네트워킹과 아카이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들과 결합된 형태의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다.

근데 만약 성평등지원센터 같은 외부 기관이 생긴다면 만약 제가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제가 지금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권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정말로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인권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인권센터랑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는지,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나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본인 친구한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전문적으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또 법률적인 조언이나 이런 거는 여성의 전화 이런 기관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커버 못하는 곳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곳이 없는 느낌? (...)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학교 학칙은 이렇고 인권센터에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근데 또 내가 법적인 해결로 가고 싶지 않을 때, 사실 법적인 거는 변호사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외부기관을 찾아가지 않는 한, 인권센터밖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뭔가 대학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까지 하지 않을 때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인권센터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의 시작점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너무 일원화를 시켜놓다 보니까.(D)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적 자문이나 기초 교육은 ‘각개전투’ 식으로 일어나는 학내 성폭력 대응이나 여성주의 활동에 대해 상호참조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변화하는 학내 지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전문가와의 1:1의 자문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발생하기 쉬운 한계와 갈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문과 교육은 일방향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탐색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센터에 요청할 법률적 도움은 성폭력 사건 대응 외에도 단체 설립과 유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과 제도 사이의 협상과 연결을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다. 성평등활동이 제도적 뒷받침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회계와 세무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제공할 수 있다면 자문을 받는 성평등활동가 뿐 아니라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회계사 등 성평등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직능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목표로 할 수 있다.

나. 조직운영 및 실무에 대한 교육

성평등활동조직을 위해서는 제도적 도움 외에도 조직운영과 실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는 신생 조직 뿐 아니라 기존의 조직도 참고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업무 시스템이 잘 구축되는 것은 단체 운영의 효율성 뿐 아니라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시작할 때부터 세팅되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요즘에는 또 하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이 저장되는 게 잘 없는 거예요. 플리커 같은 거 쓰는 단체들도 있지만 또 아닌 단체들도 있어서.(W)

한두 명의 활동가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실무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 역시 성평등활동과 떨어져 있지 않다.

실무교육도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너무 요새 필수적인데. 그걸 하시는 사람이 또 한정되어있고 돈은 못주고 이러니까. 그걸 또 많이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면 좋을 거 같고. (G)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평등 활동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숨’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최근 성평등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여성주의 운동 단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만을 만들지 않는다. 온라인에서의 모임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다들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비슷비슷했고, 페미니즘이라는 이슈를 되게 여러 그런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다루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는 되게 협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단체화되는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사진 잡지, 그들이 만든 무슨 디자인 회사 이런 것들이 되게 점점 (많아지는)... (W)

성평등을 목표로 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적 성격의 인식론 교육이나 아카이빙 뿐은 아니다. 성평등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실무적 교육 역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교육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고,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센터에서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에 특화된 교육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 때 신생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조직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다.

처음에 소모임 운영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소모임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집행부가 한 명씩 들어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임장을 뽑아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우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렇게 쪽 뒤가지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완전 도움 됐죠.(G)

이러한 조직운영 방식은 실무적인 팁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직에서 평등한 관계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다. 성평등 활동은 사회를 보다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활동의 장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실현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해져 있거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과정이 아니며, 아무리 오래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여성주의 단체가 주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평등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여성주의적 관계망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은 여러 특강과 교육을 찾아다니지만 막상 자신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지식이 외부와의 싸움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내부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무력하다면 성평등 활동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성평등 활동에 가장 필요한 실무적 지식은 여성주의적 지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센터의 실무 교육은 이러한 중심을 유지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공간 지원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리적 공간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어떤 그룹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회의나 사무 공간 뿐 아니라 행사나 짐 보관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도 여러 번 등장하였다.

짐 보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룰을 좀 만들면 관찰을 거 갖기도 하고. 저희가 피켓도 만들고 팻말도 만들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근데 다 집에 두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짐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간이 없는 팀한테 그런 공간을 쥐어주고, 회의공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지만, 원룸에 살면서 짐이 많아지면 집이 없어지니까. (...) 집을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간, 내 진지가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 짐을 여기에 둔다라는 느낌은, 여기에 진지가 생기는 건거예요.(Y)

오히려 행사 진행할 장소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180명 모인 그런 장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행사 진행하기 위한 장소라는 개념이 180명 대상으로 굿즈를 제작을 하면 개인 집에 들고 있는 것도 되게 무겁거든요. 사실 참고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강남역 1주기 행사 때 만들었던 깃발 이런 것도 누구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기로 쓸 수 있는 엄청 큰 사물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O)

한 곳에 지속적으로 짐을 보관한다는 것은 실용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일종의 아카이빙으로서, 성평등 활동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자의 집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볍지 않은 변화이며,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물리적 실체를 갖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물건의 공유와 상호참조 역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설계는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룰’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센터가 성평등 활동의 장에서 ‘모일 공간’과 ‘쌓일 공간’으로서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한없이 쌓일 수는 없는 공간의 한계로 인해 조율 역시 필요해진다. 물건이 쌓이는 것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룰’을 만들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5. 돌봄: 소속감 강화와 멤버십 형성, 아기 돌봄

센터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센터의 돌봄 역할이라고 보고,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 활동가와 성평등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솜’, ‘솜’, ‘솜’들을 비롯한 센터를 ‘들고 나는’ 사람들은 물론 강사들에게 멤버십을 부여하여 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유자녀 여성들인 ‘솜’들이 실제로 센터에 나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 아이 돌봄 지원의 경우, 센터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하자 센터, 청년 허브, 50 플러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이 돌봄의 의무 혹은 권리를 세대에 나눠지면서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가. 센터 주민에게 멤버십 부여

센터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멋진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해서 센터가 ‘저절로’ 성평등 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되지는 않는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주민’으로 정착하지 않는다면 ‘정거장’의 기능만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사실 강사만큼 중요한 게 조직 활동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중간에 뛰쳐나가면 왜 그런지 따라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개개인들을, 청중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연 같은 것이 여기에 좀 꺼내놨다라고 여겨지게, 느끼게 해야. 그래야지 여기가 그냥 정거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S)

멤버십이라는게 무슨 꼭 무슨 형식을 통해서만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컷다고 느낄 만한, 혹은 여기에 좀 그래도 마음을 썼다고 느낄 만한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강의 그 자체의 콘텐츠나 강사만큼이나, 사람 모으는 데는 그것이 중요하죠. (연구자: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고, 네가 뜨내기가 아니다라는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성주의 학교도 그렇거든요. 마지막 기말발표를 하면 20-25명이 발표하기 때문에 낮 1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나요. 모든 사람의 발표를 다 듣기 때문에. 그걸 한 판 하고나면, 도저히 익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S)

S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미니즘 학교에서 협동조합원들의 꾸준하고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익명일 수 없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고민과 문제들, 즐거움과 에너지를 센터에 내려놓는다.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센터는 이들의 ‘터전’으로 전환된다.

센터에 모인 활동가들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모임 내의 갈등들로부터 높은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온라인 페미니즘의 첨예한 대립을 비롯하여 합의되지 않는 여성주의 의제들은 산재해 있다. 특히 깊이 있는 토론식 강의가 진행될 경우, 활동가들 간의 입장 차이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더 어려운 점은, 그 기수에 어느 정도 이질적인 포지션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명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아주 기초적인 설명부터 하면서 접근해야하는 이슈가 생길 때도 아닐 때도 있고 이래요.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 중에서, 이 비혼이라는 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과 기혼이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한 팀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삐끗하면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약간 1,2,3 이렇게 차례차례. 반응 좀 들어가면서 혹은 조별 토론 같은걸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한 번, 자기는 그냥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활동조합원 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성소수자라는 걸 아는 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뒤풀이 자리에서, ‘아니 그 사람도 성소수자고 아무 문제도 안 된다’라고 선의의 아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선의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가

지고 괴로워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은 다뤄야 하는가. 개인이 혹은 커뮤니티가.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하는 시점이나, 그런 이슈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역시 좀 이런저런 예시와 상황 같은 것을 예를 좀 많이 들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누가 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누가 들을지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오지만 어찌되었거나 10주는 꼭 간다, 이 사람들로.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S)

아주 섬세하게 수강생들의 구성에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 되도록 개입하는 것이 있고요. 항상 그것은 하는 일이고요. 또한 가지는 첫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을 좀 진지하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해요. 왜 여성주의 학교를 듣게 되었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마디씩 하고,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다 세 명이 울었어요. 첫 시간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빨리 인(in)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좋은 강의로 시작하지 말고. 좋은 말트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거기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아니면 긴장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를 아예 칠판에 적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강에서 다룰 예정인데, 일단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기로 하자.(S)

참여자들은 이처럼 언제나 이질적인 맥락과 입장 속에 놓여있다. 특히 ‘이질성’이 갈등을 내포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센터는 이를 보다 “섬세하게”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강의나 프로그램 첫 시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S는 이를 “좋은 말트기”라고 부른다. 각자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센터에 모였는지 가장 사적인, 그러나 가장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보류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서로를 알아가는 느린 호흡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름 붙이며 전선을 형성하는 운동 방식으로부터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여기에는 강사와 센터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내밀한 이야기가 기각될 경우, 혹은 센터에서조차 자신의 존재가 무시된다고 생각될 경우 연대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는 S가 언급한 “조직활동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자들의 입장과 위치를 파악하고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야한다. 참여자들은 여성주의적 얹이 동반하는 보대낌을 함께 경험하고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비로소 샘터의 주민으로 안착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네크워킹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성평등이란 거 아직 잘 모르겠다. 같이 성평등이 뭔지 당신들과 알아가고 싶다. 뭔지가 있으면 좀 더. 울면서 다 하겠쥬. 이런 게 힘들었고, 이런 게 어려웠었고, 그렇게 네트워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이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 활동지원센터가 동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관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는 걸 같이 알아주는 사람. 사회를 같이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여기를 믿고 진지를 치고 활동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Y)

Y는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가들이 “울면서” 성평등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앞서 S의 언급과 유사한 정서적 공동

체의 형성이 전제되어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가들이 공통의 감각을 갖게 되면서 센터는 “진지”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앞서 센터의 주요 목표로 제시된 네트워킹 또한 일종의 돌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아이 돌봄 제공

앞서 K의 사례는 아이 돌봄 제공이 주 양육자들을 활동가로 소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되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동안 제가 밖에 못 나가니까 여성주의 관련된 책 읽고 혼자 목마름을 해결하다가 한겨레 신문에 조그마하게 여성 민우회라는 단체에서 교육한다는 민우 여성학교라는 걸 보게 됐고. 전화를 했더니 애기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중략) 이제 애기를 업고 양쪽에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들고 이렇게 다녔죠. 되게 힘들고 한 번 갔다 오면 애가 너무 무거우니까. 돌 무렵이었으니까. 완전히 지치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된, 그것이 저의 숨통을 틔어주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던달까.(K)

연구 참여자 S는 조합원들 간의 협동으로 여성주의 학교 참여자들의 아이를 돌보아 준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주의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주의학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너무 애가 어린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아이 돌봄 제공 안 되나

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올려요. 그러면 그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아이 돌봄을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몇 주차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누구는 몇 주차에 하자 담당을 정해서, 실제로 간식도 준비하고 안내도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검토하고 붙이러 다니고. (5)

돌봄 제공의 일차적 효과는 물론 활동가들이 마음 편히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센터의 아이 돌봄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서야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돌봄은 본래 ‘사회적’이다. 돌봄의 과정을 통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돌봄을 받는 아이나 돌봄을 하는 어른 모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문제시되어 왔던 이유는 돌봄 제공자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고된 노동을 짊어지며, 여성들에게 그 무게가 과중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돌봄 노동의 외주화, 또 다른 소외된 노동력의 착취를 강요하는 대신 공동체적 돌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센터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하자 센터, 청년 허브, 50플러스 등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돌보기’를 제안한다. 성평등 활동지원센터, 하자 센터, 청년 허브, 50플러스는 모두 서로 다른 연령, 젠더의 인구가 모이는 허브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름지 모르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안적 사회를 모색해 나가는 공간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전 연령, 전 젠더가 참여하는 아이 돌봄은 진정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현한다. 이는 아이 돌봄 이용자들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들까지 공동체의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IV. 결론

이상으로 11명의, 세대와 활동의 장이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하나인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방향과 그 방향을 구성해 나아갈 활동 내용들을 모색해 보았다. 크게는 본 보고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단계별 여성주의 강의, 커리어 개발을 포함하는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킹, 조직화 교육, 조직화에 필요한 실무 능력 교육과 여성주의 이론과 활동 궤적은 물론 센터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아카이빙, 센터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멤버십과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 제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성평등성을 지향하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을 추구하였지만, 그럼에도 센터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제도와 법을 따르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항상 그들의 보수성과 협상하고 그에 따라 센터의 지향이나 지원방식과 내용을 타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내용이 센터의 활동을 확정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밑그림으로써 센터가 첫 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진은 센터가 여성주의적 진화를 거듭하며 급변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민감하고 동시에 서울시 구성원의 다수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하고 대중성 있는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본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V. 참고문헌

- 김태영. (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 연구, 22(2), 81-125.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 나윤경, 노주희. (2013).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30(2), 169-203.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
- 이민경. (2016).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서울: 봄알람.
- 이진이. (2017). 실천 공동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평생교육학적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전희경. (2008).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서울: 이매진.
- 홍영숙. (201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사례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미간).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비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

인쇄일 : 2017년 12월 28일

발행일 : 2017년 12월 28일

발행처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인쇄처 : 카피웍스(TEL :02-2123-8146)